

# 제46차 INTERSTENO 총회 참가 보고

국 제 부

1. 기 간 : 2007년 7. 19(목)~7. 27(금)

2. 장 소 : 체코 프라하 **University of Agriculture**

3. 한국대표 : 홍은주(협회 회원)

오근순(협회 사업부장)

유미형(협회 총무부장)

이현숙(협회 회원)

## 4. 참가국 및 참가인원

- 31개국 473여 명 참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이탈리아, 인도, 중국, 체코,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 5. 참가 목적

- 속기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할 우리의 방향 모색.
- 한국의 속기를 세계에 알리는 등 친목 도모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2007년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및 체코 의회 시찰
  - 해외 속기 자료 수집, 정보 교류

-우리나라 속기 및 회의록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 모색

## 6. INTERSTENO 총회 일정

- 7.19(목) : 총회 집행부 사무실 오픈  
다국어 속기경기대회
- 7.20(금) : 다국어 속기경기대회(계속)  
인터스테노 위원회 미팅
- 7.21(토) : 중앙위원회 미팅  
환영의 밤(개막식 행사)
- 7.22(일) : 의회속기사부(IPRS) 미팅  
속기경기대회 참관
  - ▶ 텍스트 산출 + 수정
  - ▶ 워드프로세스
  - ▶ Speech Capturing
    - 그래픽
    - 속기/키보드
    - 음성인식
- 7.23(월) : 속기경기대회 참관(계속)
  - ▶ 실시간 번문
  - ▶ Speech Capturing속기기계 관련 프리젠테이션과 워크숍  
중앙위원회 미팅
- 7.24(화) : 강연 I  
강연 II

- 7.25(수) : Youth day  
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미팅
- 7.26(목) : 중앙위원회 미팅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연회

## 6. INTERSTENO 총회 행사 내용

- 대한속기협회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2007년도 INTERSTENO 제46차 총회(Intersteno Congress)가 한국 대표 4명을 포함하여 모두 31개국에서 47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수만 해도 47만여 명에 달해 이번 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줌.

### - Opening 행사(7.21)

참가자들이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우리 측에서는 홍은주 회원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음.



### - 속기경기대회 참관(7.22 ~ 23)

다국어 속기경기대회에서는 독일인인 Boris Neubauer 씨가 무려 17개 언어

를 가지고 1등의 영광을 누렸으며, 실시간 속기대회에서는 이탈리아인인 Francesca Cabiati 씨가 1등의 영광을 누리. 2등의 영광은 중국인인 Yan Liu 씨가 차지하였는데 그동안 유럽 쪽에서 휩쓸던 상을 같은 동양인이 수상해서인지 우리나라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각국 참가자들의 경기대회 준비 모습

#### － 의회속기사부(IPRS) 미팅(7.22)

IPRS 미팅에서는 체코 의회 방문의 기회를 가졌으며 세계 의회인들과의 보다 더 돈독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음. 아이슬란드 Maria Greta Gudjonsdottir 회원의 제안으로 IPRS 미팅의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서 기존 총회 기간 외에 향후 정기적인 IPRS 미팅을 가질 것을 제안함.

#### － 강연과 발표(7.24)

강연은 Part I 과 Part II로 진행되었으며 「기록의 전통적인 그리고 새로운 산출물-직업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가치」 「정보 처리(펜에서 음성인식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됨.

또한 「텍스트 캡처링 기술의 통합 교습, 종사자의 자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Dr. Klaus Ramming와 Fabrizio Verruso 등이 발표하였으며 「속기와 음성인식기술 : 기술자의 시각에서」 「속기와 음성인식기술의 사용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Dr. Carlo Aliprandi 외 여러 명이 발표하였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되어서 기존 속기방식에의 적용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중앙위원회(7.21/23/26)

- 1) 중앙위원회(Council)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대표로 홍순관 부회장을 선임함.
- 2) INTERSTENO 운영위원장인 Jaroslav Polacek는 2009년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총회인 중국 베이징 총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2008년 중앙위원회와 특별 IPRS 미팅 일정을 결정함.

▶ 2008 중앙위원회

장소 : 폴란드 티히(Tychy)

일시 : 2008. 9. 19 ~ 22

▶ 2008 IPRS 미팅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Hague)

일시 : 2008. 8. 20 ~ 22

— 속기경기대회 시상식(7.26)

- 텍스트 생성/수정 부문(시니어부) 1위 : Vaclav Mikula(체코)
- 프로페셔널 워드 프로세싱(시니어부) 1위 : Petr Sekanina(체코)
- 속기/스피치 캡처링 그래픽(시니어부) 1위 : Josip Hanjs(크로아티아)
- 속기/스피치 캡처링 속기기계/키보드(시니어부) 1위 : Laura Brewer(미국)
- 실시간 번문(시니어부) 1위 : Francesca Cabiati(이탈리아)
- 다국어 속기(시니어부) 1위 : Boris Neubauer(독일)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중에서

## — 관광(7.27)

총회 일정 중간 중간에는 프라하 근처의 명소들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져 각국 대표들과 우정과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프라하 구시가 중심에 있는 1968년 당시 민주화의 함성이 가득했던 역사의 현  
장인 바츨라프광장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체스키크로몰로브(Cesky  
Krumlov)를 방문하여 중세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짐.



체스키크로몰로브(Cesky Krumlov)에서 기념촬영

## 7. 성과 및 건의사항

- 1) 세계 각국의 기록문화 및 속기 기계화의 추이에 대한 정보 교환과 자료 공유  
를 통해 속기인들의 국제적 연대 강화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기록문화

향상과 회의록 서비스 체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동시에 체코 문화 탐방을 함으로써 속기협회 회원들의 사기 앙양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기여함.

- 2) 속기계의 국제행사인 INTERSTEN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세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속에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
- 3) 인터스테노 총회에서 경기대회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실시간 번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속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그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느껴짐.
- 4) 우리가 본 영어 음성인식기의 수준은 기존의 방식에서 더 업그레이드되어 속기기계 + 음성인식기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음. 그 스폰서는 우리에게 곧 우리 언어로 된, 그리고 좀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글로 옮길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해 주었음. 우리 의회 기록의 방향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속기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기록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5) 2008년 8월 IPRS 미팅과 9월에 열리는 중앙위원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총회인 2009년 베이징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인 만큼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짐. 국제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더욱 많은 상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됨.
- 6)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참가경비를 국고에만 의존해서 하기보다 자비 부담을

늘려 참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됨.